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소득 사업 육성

전남도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10만명에 25억원 지원 판촉 강화
콩나물·반려식물 키우기 등 80여종
농업경영체 경영난 해소 큰 보탬



최근 장성군 노인복지센터에서 지역 어르신들이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사업 중 하나인 ‘편백나무키우기’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

전남도가 어르신 행복과 코로나 맞춤형 시책으로 주목받는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공급 사업이 농업경영체의 신속 사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판촉을 강화한다.

전남도가 올해 목표한 농업경영체의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판매액은 30억원이다. 이를 위해 도내 어르신, 장애인, 아동 등 복지시설의 10만명을 대상으로 구입비 25억원을 지원한다. 개인당 평균 지원금액은 3만5000원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세먼지, 여름철 폭염, 장마, 겨울철 한파 등으로 실외활동이 어려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물론 농업경영체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공급 상품은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치가 높은 콩나물 및 반려식물 키우기, 천연염색 마스크 만들기 등 80여 종이다.

지원을 바라는 복지시설은 시군 농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체험활동 희망일 5일 전까지 전남도가 운영하는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남도

장터’(jmall.kr)에서 구입하면 된다.

이와 함께 건강꾸러미 판매 확대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판촉 활동을 강화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사업비도 추가로 확보할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사업을 시행해 17억원의 건강꾸러미를 판매, 코로나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 위기를 극복한 우수사례로 각광받았다”며 “다양한 신상품을 발굴해 농업경영체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늘린다

공공후견인사업 등10억여원 투입

전남도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보장 및 인식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공공후견인사업 등 10억 610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는 도내 발달장애인 개인의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자기 결정과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사회안전망 형성 및 의사결정 지원 등 발달장애인에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특히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권리구제, 보호자의 양육 방법과 돌봄 스트레스 경감, 민간·공공의 사후관리

를 통한 지역사회에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수혜자 발굴에 노력이 없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다. 전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 11월부터 사업을 시행, 2021년 12월까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공공후견 심판청구 지원, 권리구제 형사·사법절차 지원, 부모교육 및 가족 휴식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운영 등의 사업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은 물론 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먼저 배려하는 복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겠다”며 “특히 수혜 대상자가 누락하지 않도록 사업 연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산림자원연구소, 대나무 고부가 상품화

전남대·조선대와 공동 연구

가공 공정 통해 샴푸·캔들 등 제작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전남대, 조선대와 함께 ‘국산 대나무의 최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개발’을 위해 공동연구를 추진, 두피케어 샴푸(사진) 등 친환경 고부가 상품화에 매진하고 있다.

‘국산 대나무의 최적 가공 및 고부가가치 소재화 기술개발’은 산림청 연구개발(R&D)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020년부터 3년간 7억원의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추진한다.

그동안 전남대 이형우 교수와 박종년 교수 연구팀은 대나무 통대의 안전한 건조를 위해 저온 열처리 기술을 개발해 원통형 대나무에 적용한 결과 갈라짐 현상이 방지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대나무 마디를 포함한 원통형 대나무의 평판화 장치를 개발해 벽재·바닥재 등 생활 인테리어 자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보였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대나무류에 주로 발생하는 곰팡이 7종을 새롭게 분리 동정했으며, 친환경 보존제 선별시험을 통해 항곰팡이 효능을 확인해 대나무류 발생 곰팡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조선대 신현재 교수 연구팀은 대나무 수액과 대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대나무 샴푸인 ‘폴론’을 개



발해 상표 등록을 마쳤다. 이 대나무수액 함유 샴푸는 국제환경 EWG 그린등급(EWG Verified)에 해당하는 인증을 획득해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도 확보했다.

EWG는 미국의 사설 비영리환경단체로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가는 성분의 안전성을 녹색과 황색, 적색 3등급으로 인증하고 있다. 이중 녹색은 가장 안전성이 높은 등급이다.

대나무 샴푸 ‘폴론’은 소비자가 선호하는 두피 케어 전문샴푸다. 출시 후 와디즈 1차 펀딩에 1000%를 달성하는 등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상태로 다양한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제품 판매를 시작한 상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우리집 실내 유해물질 무료 검사 받으세요

전남보건환경연구원

공기질 측정 방문서비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겨울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호흡하는 공기의 관리 중요성이 부각함에 따라 ‘실내공기질 무료 측정 방문서비스’에 나선다.

이는 새집증후군 등 환경성질환으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서비스 대상은 실내공기질관리법의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100세대 이하 신축 공동주택, 귀농 귀촌 신규 주택 등이다. 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이용시설을 우선해 중점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항목은 건축자재나 마감재에서 흔히 배출되고 아토피나 호흡기질환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암반이나 천연 건축자재에서 발생해 폐암을 유발하는 라돈 등 인체 위해도가 높은 6개 물질이다.

무료 측정 서비스를 바라는 도민은 연구원 누리집에 접속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연구원 누리집(<http://jih.e.go.kr>) 배너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세대를 직접 방문해 측정된 후 현장에서 측정 결과를 신속히 제공할 뿐 아니라 부적합한 시설은 오염 원인을 파악해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베이킹 아웃 및 환기 등 원인별 대처 방법과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이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환경보건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는 등 도민 건강 보호 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양돈농가 방역시설 5000만원 지원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70억 투입

전남도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양돈 사육 농가에 맞춤형 방역시설 설치를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비 총 70억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돼지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양돈 농가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의 일환이다.

사업비로 설치할 수 있는 농가 핵심 방역시설은

내부 울타리, 방역실, 전실, 입·출하대, 물품 보관 시설, 폐기물 관리시설 등이다. 지원금은 농가당 최대 5000만원이다. 소요 비용의 60%를 보조하며, 자부담 비율은 용자 30%를 포함 40%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과에 속한 동물에게 나타나며, 치사율이 100%에 육박한다. 바이러스 생존력이 매우 높아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도 수개월에서 수년간 생존할 수 있다.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농가 단위 차단 방역활동 강화가 최선의 대책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야생멧돼지가 충북지역까지 남하한 만큼 해당 지역을 경유한 차량과 사람을 통해 언제든 전남에 유입 가능한 상황”이라며 “양돈농가는 질병이 유입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방역시설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내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확인된 2019년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돼지농장에서 경기 9건, 강원 7건, 인천 5건 등 21건이, 야생멧돼지에서 강원 1238건, 경기 655건, 충북 69건 등 1962건이 발생했다. 전남은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지역 활력 이끌 청년공동체 10개 팀 모집

전남도 31일~2월 9일 접수

전남도가 2022년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청년공동체 10개 팀을 모집한다.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 청년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고, 지역 내 청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사회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했다.

사업 접수 기간은 오는 31일부터 2월 9일까지다. 도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

성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청년의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법인·단체 설립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선발 후 사업비 지급 전까지 설립해야 한다.

최종 선발된 청년공동체 10개 팀에는 ▲팀당 800만원 상당의 과업수행비 지원 ▲멘토·전문가 자문 ▲청년공동체 간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활동 홍보 지원 등 혜택이 있다. 또한 연말 최종 성과 평가에서 우수 청년공동체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 포상도 주어진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